

내일 제 62회 경찰의 날, 경찰 6인조 밴드 '광산 폴 음악사랑'



'광산 폴 음악사랑' 경찰관들이 지난 18일 밤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동호회 합주실에 모여 연습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철은(알토 색소폰)·박양주 경사(기타), 정성태 경위(키보드), 김광중 경장(알토 색소폰), 조순봉(드럼)·김흥기 경사(테너 색소폰).

불우 시설 찾아 음악으로 대민봉사

음악으로 대민봉사 활동을 하는 경찰관들이 있다. '딱딱하고 차가운' 경찰상에 찾아왔던 어린이·노인들은 기타·색소폰·키보드·드럼으로 어우러진 흥겹고 아름다운 하모니에 어깨를 들썩거리며 하나가 된다.

광주 광산경찰서 경찰관 6명 바쁜 업무속에도 月 1회 공연

지난 18일 밤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의 한 사무실. 굳게 닫힌 문 사이로 시끄러운 음악이 새어나온다. 문을 열자 남녀 여성 명이 옥신각신 중이다. 승강기를 밟고 있는 이들은 그냥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아저씨들이 아니다. 최근 한 휴대전화 광고에서 밤마다 바빠 아들로부터 '도둑일'을 하는 사람으로 오해받았던 경찰관들이었다.

성했다. 한 때 뮤지컬 배우, 가수, 드럼 연주자, 기타리스트 등을 꿈꿨던 이들은 주재할 수 없는 끼를 접어들 수 없었다. 불혹(不惑)이 넘은 나이지만, '더 늦기 전에' 확장시절의 꿈을 다가가고 싶었다.

서 내 목욕탕에서 연습했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팀 고문 엄현규(55·유치팀장) 경위가 본인 소유 건물의 한 사무실을 개조, 방음장치와 흡사터 시설을 갖춘 13평 크기의 근사한 합주실을 무료로 제공해줬다.

주말·휴일 초겨울 추위...산간엔 얼음

주말과 휴일 광주·전남지역에 '반짝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 기상청은 "주말인 20일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 날씨가 되겠지만, 아침 기온이 2~10도까지 내려가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다"고 예보했다.

가 내리겠다"며 "서해안지역에서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고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음란물 유포·개인정보 유출

여수경찰, 31명 무더기 검거

여수경찰은 인터넷상에서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한 31명을 검거, 1명을 구속하고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N사와 F사에 회원으로 가입, 가상공간에 동영상 등을 올린 후 이를 다운로드 받는 사람에게서 사이버머니 포인트 10%를 적립 받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대학생 A씨(22) 등 19명도 붙잡았다.

농민연대·전남도의원 등 30여 명

"쌀 생산비 보장하라"

광주·전남 농민연대 회원과 전남도의원 의원 등 30여 명은 19일 전남도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쌀 생산비를 보장하고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연간 835억원에 이르게 된다며 '농민단체가 조사한 생산비는 20만1천502원임으로 정부는 쌀 목표가격을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 어린이 성추행범 풀닐

태국서 체포됐다

어린이 성추행 혐의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의 수배를 받아 온 캐나다 출신 크리스토퍼 풀닐(32)이 태국 북동부에서 체포됐다고 태국 경찰이 19일 밝혔다.

베트남, 캄보디아 소년 12명을 자신이 성추행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 200여 장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인터폴의 '적색 수배자' 명단에 올랐다.

나원침 (7336) 김중두



Advertisement for KCC (Korea Consumer Council) with text: '다들 권하하네! KCC', 'DS건설(주)', 'KCC참고, 시스텔참고 생산·시공', '(주)본드나리'.



광주김치축제에 몰린 인파

광주 북구 운암동 중외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2007 광주김치축제'에 몰린 관람객. 행사 셋째 날인 19일엔 6만여 명의 시민과 외국인들이 찾아와 목석이 응용요리 경연대회·한복 패션쇼·빛고를 주민 한마당 등 다채로운 행사를 즐겼다. 김치축제는 오는 21일까지 열린다.

달아났다. K씨에 따르면 "복면을 한 40대 초반의 남자 2명이 갑자기 들어와 주방에 있던 흥기를 들이대며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소촌동 치킨집에 2인조 복면 강도 20만원 빼앗아 도주

19일 새벽 1시30분경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A 치킨집에 복면을 한 남성 2명이 침입, 여주인 K(47)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20만원을 빼앗아

경찰은 이들이 밤 늦게 여자 1명이 일하고 있는 것을 미리 확인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동종 전과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아내 폭행 이찬 사회봉사 240시간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안성준 판사는 19일 아내인 탤런트 이민영을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이찬(본명 광현·사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240시간을 선고.

광주·전남 범무사 과다 비용 청구 등 횡포 급증 징계 조치는 '솜방망이'

광주·전남 범무사 과다 비용 청구 등 횡포 급증 징계 조치는 '솜방망이'

법제사범위 국감 자료

등기이전 과다 비용 청구 등 범무사로 인한 피해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징계 조치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징정·비위 고발서 접수 건수는 58건이었다. 이 중 40건이 처리됐지만, 범무사의 비위행위를 묻지 않는 불문 처리가 20건으로 절반 가까이 징계를 받지 않았다.

63.5% ▲2006년 53.6% ▲2007년 상반기 50%로 최근 3년간 50%를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 범무사를 징계했으며, 이 중 ▲업무정지 1건 ▲과태료 5건(1천700만원) ▲서면 경고 17건 ▲주의촉구 1건 ▲불문 3건 순이었다. 징계 사유는 대부분 승인받지 않은 사무원 채용과 사건부 기재 누락이었다.

Weather forecast for October 20th (Monday, 10th day of the 9th lunar month). Includes temperature ranges for various regions (e.g., 8~14°C, 9~14°C) and a table for the day of the week (21st to 26th).